

# “환경보존은 바로 우리生命 보호”

「녹색의 전화」 개설한 朴英淑 平民부총재

초대석



오염·被害者 사례 수집 정책立案 등 모색

朴英淑 平民부총재가 환경보존을 위한 범지역적 움직임을 개시했다.

「녹색의 전화」로 이름을인조지를 28일부터 운영, 전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환경파괴에 대한 피해상당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겠다는 것이다.

『환경보존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어서 누구라도 나서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보존과 맞먹는 일이네요. 앞으로 선진국 안 녹색의전화들을 한 사례 파악으로 공해와 그로인한 피해 등 환경파괴의 전모를 살펴보면 알

으로의 활동이 어떤 유형으로 전개될 것인지 노하우가 떠오르리라고 생각해요』 전례가 없는 작업이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하지만 앞으로 힘이 무척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부총재가 환경보존캠페인을 펼칠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간 국회에서 벌여온 활동으로도 짐작이 됐던 것이긴 하다.

그는 서울시 정수장 오염, 군산 공해배출공정문제, 설악산과 괴안탄포상수변의 진폐증환자 발생, 원전문제를 환경현안에 대해 집요한 조사활동을 벌이며

이를 문제시해 왔다.

『30여년의 산업화로 누적된 공해문제가 이제 실제생활에 드러나는 거지요. 어떤 사례들은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우리 녹색팀은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 해결방법을 찾는 일에 활동방향을 맞추려 합니다』

현재 녹색의전화팀은 박의원이 국회에서부터 팀원을 이 루었던 전문가 법률가 자원봉사자들이 협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직 아무 기쁨도 없고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내의 무덤고 비좁은 공간이 활동장소이지만

이곳은 모든 이들이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공개된 곳이란 의미가 형성돼 있다.

『의원직업활동사회의 의정활동이 멈춰섰지요. 그렇다면 이제 환경보존작업을 하자고 나선 것이죠. 9시에 출근하는 현장 조사에 치중하고 다시 6시에 돌아와 새로운 사례들을 들여다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미치는 전문적 지식은 모자라지만 환경문제를 둘러싼 행정부의 구조를 아는만큼 일을 진전시킬 수 있지요. 환경문제만들기 중앙에서 종합정책으로 다루야 하는데 이 건도 철저히 지방분권화돼 있어서 출현한 행정력이 있었어요. 박부총재는 20여년 넘게 그가 골몰하는 이 일을 특별히 생명을 가누는 여성의 대지적인 母性과도 일치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아무리 결론있는 행정책에 게서도 환경을 인간생명과 동일시하는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에 그가 의원이자 여성이며 한국민으로서 고달픈 이일에 발벗고 나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유쾌에 한참 뒤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가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없이 보여지는 것은 그에게 서려있는 젊음은 생각이 일반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글 金裕卿·사진 權鎬郁 기자